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2022년 4월, 하늘에 별이 된 김포FC 유소년
축구 U-18팀 정우림 선수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3년도 제50호

체육시민연대, 문화연대, 스포츠인권연구소, 민변 문화예술위원회 공동 성명

국가대표선수 해병대 강제 입소, 이기흥 체육회장은 즉각 사과하고 철회하라

2023.12.17

체육시민연대 “철 지난 인습” 이기흥 회장 비판 성명

우상혁·안산·황선우 ‘해병대 전투복’ 입는다

김용일 스포츠서울 기자

중학생 때 팀 감독 동료 선수엔 자격정지 6개월 추가

'유소년 극단 선택' 김포FC 전 코치 등에 체육회도 징계 유지

이의진 연합뉴스 기자

제26회 한국올림픽성화회 체육상

수영 김우민 · 육상 400m 계주팀 등 올림픽성화회 체육상 수상

정희돈 SBS 기자

'2023년 체육시설 안전경영 인증'

국민체육진흥공단, 2023년 안전경영 인증 체육시설 선정

서장원 뉴스1 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보 도 자 료  체육시민연대 <small>KOREA NATIONAL TRAINING CENTER FOR ATHLETE TRAINING</small>	배 포	2023년 12월 17일(일)
	보도일시	2023년 11월 17일(일)
	전 화	02) 2279 - 8999
	홈페이지	www.sportscm.org

성 명 서

국가대표선수 해병대 강제 입소, 이기홍 체육회장은 즉각 사과하고 철회하라

“내년에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입촌하기 전에 모두 해병대 극기훈련을 받게 하겠다.”

설마 했다. 정신력이 해이해졌다며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해병대 극기훈련을 시키겠다는니.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진행된 결산 기자회견장에서 나온 대한체육회장 이기홍의 말이다.

이기홍 회장의 발언 배경이 더 놀랍다. “요즘 선수들은 새벽 운동을 안 하려고 한다. 강제로 하게 할 수도 없다. 이게 심화하면 인권 이야기가 나온다.” 국제대회 경기력을 새벽 운동을 안 하는 탓으로 돌리고 ‘인권 이야기’ 때문에 강제적인 훈련이 어렵다니. 선수들이 인권을 핑계로 훈련을 게을리해 경기력이 떨어졌다는 소린가? 번지수를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었다.

그저 단순한 실언이기를 바랬다. 그 당시 현장에 있던 기자들도 용성거리며 시대착오적인 발언에 귀를 의심했고 당사자인 선수들의 반응도 싸늘했다. 그러나 명백히 시대착오적이며 반인권적인 이기홍 회장의 발언은 기어이 실현되고 만다. 약 두 달 만에 국가대표 선수 400명이 오늘(12월 18일) 프항 해병대 1사단에 입소하는 것이다.

입소자 명단에는 수영의 황선우, 육상의 우상혁과 같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총망라되어 있다. 심지어 대한체육회는 공문을 통해 선수뿐 아니라 협회 임원진 2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종용했다.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이에 반발할 단체장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체육계에 오래 묵은 상명하복의 문화 탓이다. 불행히도 철 지난 인습을 공고히 하는 이런 실효성 없는 이벤트가 회장의 말 한마디에 실행되고 있는 것이 대한체육회의 현실이다. 회장이 가자고 하면 아무리 말도 안 되는 지시라도는 질끈 잡고 입소하는 종목단체장들의 행태는 대통령과 함께 덕복이 접시를 받아 들고 병풍을 선 재벌총수들의 모습과 겹친다.

해병대 극기훈련은 기본적으로 극한의 신체적인 한계를 맛보게 하면서 악으로 강으로 버티고 끝내 적을 무찌르는 정신을 강조한다. 참혹한 전쟁터에서 군인에게 꼭 필요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자기 종목의 세계적인 전문가인 국가대표선수들에게 해병대 DNA를 주입하겠다는니? 국가대표 선수들만큼 극한의 신체적인 한계를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이들이 있을까? 누가 누구를 가르친다는 말인가? 더구나 악으로 강으로 버티는 것만으로 최고의 경기력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다. 내 앞에 선 상대는 밥아 먹어야 할 적이 아니라, 나와 같이 스포츠를 사랑하고 그 종목에 뛰어들어 인생을 바친 소중한 동업자이자 선의의 경쟁자라는 생각에 이른 세계적인 수준의 귀한 선수들이다. 이미 자신이 잘하고 좋아하는 운동을 하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스스로 이겨내는 대한민국 최고의 선수들에게 실미도식 극기 살기식 강제훈련을 강요하는 셈이다.

이기홍 대한체육회장은 지난 14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이번 해병대 캠프 입소와 ‘원 팀 코리아(ONE TEAM KOREA)’ 교육은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결의를 다지는 의미다”라고 밝혔다. 원 팀 코리아. 최근 유행하는 영화 ‘서울의 봄’에서 쿠데타에 성공한 전투장이 술잔을 높이 올리면서 선창하는 구호가 쟁쟁하다. ‘우리는, 하나다!’ 국가대표 해병대 강제 입소를 말 한마디로 이끄는 이기홍 회장이 생각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대한체육회장의 실언으로 비롯된 시대착오적인 국가대표 선수의 집단 해병대 강제 입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대한체육회는 시대착오적인 국가대표 해병대 집단 강제 입소 즉각 중단하라.

하나. 대한체육회의 권위적인 군사문화 이기홍 회장은 즉각 사과하라

하나. 국가대표 정신력 훈련은 선수들과 지도자, 스포츠과학자에게 맡기고 대한체육회는 지원이나 잘해라

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우리는 국제 올림픽 위원회 제소, 국가인권위 진정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2023. 12. 17

체육시민연대, 문화연대, 스포츠인권연구소, 민변 문화예술위원회

우상혁 안산 황선우 '해병대 전투복' 입는다... 체육시민연대 "철 지난 인습" 이기흥 회장 비판 성명

황선우(수영)와 우상혁(육상 높이뛰기), 김제덕 안산(이상 양궁) 등 주요 종목 국가대표 선수들이 매서운 한파 속에 '해병대 전투복'을 입는다.

국가대표 선수단과 대한체육회, 경기단체 임직원 500여 명은 18일부터 20일까지 포항 해병대 1사단에서 해병대 캠프에 참가한다. 이번 캠프엔 주요 종목 대표 스타가 대거 참가하는 데, 18일 오전 10시 진천선수촌에서 단체 버스를 통해 해병대로 이동한다.

체육회는 앞서 이번 캠프는 지난 2020 도쿄올림픽 부진을 만회하고 재도약하는 계기로 2024 파리올림픽에 나설 국가대표 선수의 정신력 강화 등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지난 10월 "내년 국가대표 선수는 입촌하기 전에 해병대에서 극기 훈련할 것이다. 나도 같이 입촌할 것"이라고 공언해 공분을 샀다. 그런데도 불과 두 달 만에 이 회장의 공언은 현실이 됐다.

여론은 크게 악화했다. 해병대 캠프를 두고 구시대적 발상과 더불어 오히려 선수단 사기를 꺾는 처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그러나 이 회장은 지난 14일 체육회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예스러운 방식의 해병대 캠프 프로그램이 아닌 도전과 단결, 성실, 명예정신 교육 및 고취에 초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체육회 관계자는 "고무보트 훈련 등 해병대 특유의 훈련 프로그램은 일부 포함돼 있다. 그러나 선수 부상 등을 고려한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간담회에서 최근 국내 엘리스 스포츠의 뼈아픈 현실을 개탄하며 내년 파리올림픽 전망도 어둡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

그는 "현재 흐름이면 파리에서 금메달 5~6개에 머물 수 있다. 펜싱이나 양궁 외엔 장담을 못 한다. 이럴 경우 (종합 순위) 15~20위 사이에 놓일 수 있다"면서 해병대 캠프가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표 선수 육체 단련과 정신력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회장의 이런 의지에도 여전히 비판 목소리가 따른다. 체육 전문관련 시민단체들은 18일 공동성명을 통해 '국가대표선수 해병대 강제 입소, 이기흥 회장은 즉각 사과하고 철회하라' 제하의 성명을 냈다.

단체들은 "체육계의 오래 묵은 상명하복의 문화 탓이다. 철 지난 인습을 공고히 하는 실효성 없는 이벤트가 회장 말 한마디에 실행되는 것이 체육회의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표 선수만큼 극한의 신체적 한계를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이들이 있을까. 누가 누구를 가르친다는 말인가"라며 이 회장에게 해병대 캠프 운영 철회를 요구했다.

'유소년 극단 선택' 김포FC 전 코치 등에 체육회도 징계 유지

김포FC 유소년 선수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지도자들에게 대한체육회도 책임을 물어 대한축구협회의 징계를 유지하거나 추가하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1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대한체육회는 최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10대 축구 선수 정모 군이 지난해 4월 극단적 선택을 한 사안과 관련, 축구협회 징계를 받은 5명에 대한 처분을 확정했다.

이번 공정위는 정 군 유족과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 모두 국내 축구 행정을 총괄하는 대한축구협회 징계가 부당하다며 상위 기관인 대한체육회에 재심의를 요청해 열렸다. 유족은 축구협회 조치로는 부족하다며 체육회가 징계 수위를 더 높이라고 촉구했고, 가해자 측은 기존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자체 논의를 마친 축구협회는 김포의 전 감독, 코치를 비롯해 정군의 중학생 때 팀 감독과 당시 동료 선수에게도 중징계를 내렸다.

당시 김포의 A 전 코치는 자격정지 3년, B 전 코치는 2년 징계를 받았다. 이들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C 전 감독에게는 자격정지 2년 징계가 부과됐다.

중학교 팀 D 전 감독과 당시 동료였던 E군에게는 자격정지 1년 징계가 내려졌다. 자격 정지는 협회 관할 내 모든 활동이 금지되는 징계다. 체육회는 이 가운데 전 김포 유소년 지도자들에게는 기존 징계 효력을 그대로 인정했다. 다만 D 전 감독과 E 군은 유족의 의견을 받아들여 징계를 기존 자격정지 1년에서 1년 6개월로 올렸다.

연합뉴스가 확보한 징계결정서를 보면, 체육회는 가장 큰 징계를 받은 A 전 코치에 대해 타 선수들의 설문조사 자료에 근거해 혐의가 인정된다는 기존 징계를 유지했다.

특히 정 군 사망 당시 음주 상태에서 학생을 지도했다며 당시 언행이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줬 극단적 선택의 직접적 원인이 됐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체육회는 B 전 코치의 선수단 관리 행위도 일종의 인권 침해로 봤고, 이런 내부 문제가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진 데는 C 전 감독의 관리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둘에게도 기존 징계를 적용했다.

더불어 체육회는 이 사안의 최초 조사를 맡은 스포츠윤리센터의 결정문과 당사자·관계자 진술을 토대로, E군이 정 군과 함께하던 시절 일상적으로 한 행동이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안긴 인권 침해라고 봤다.

또, D 전 감독에게는 E군이 피해자에게 보인 행동을 인지하지 못한 게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극단적 선택 자체는 김포 18세 이하(U-18) 팀에서 발생했으나, 유서 내용을 보면 중학교 때 경험이 피해자의 심리에 악영향을 줬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이 둘의 징계 수위를 높였다.

체육회는 이번 징계 처분을 지난 6일 자로 발효했다.

수영 김우민 · 육상 400m 계주팀 등 올림픽성화회 체육상 수상

올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선수단 남자 최우수선수(MVP)로 뽑힌 수영 김우민과 항저우 아시안게임 400m 계주에서 동메달을 따낸 육상 남자 대표팀 등이 제26회 한국올림픽성화회 체육상 선수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한국올림픽성화회는 내일(1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제26회 체육상 시상식 및 동계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상식 선수 부문에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3관왕 김우민, 육상 남자 400m 계주에서 37년 만에 동메달을 획득한 대표팀(김국영, 고승환, 이정태, 박원진, 이재성), 2022년 아시아 산악자전거 챔피언십 우승자 천성훈이 수상자로 뽑혔습니다.

장재근 인천선수촌 촌장이 공로상, 전동현 수영 국가대표 수석코치가 지도상을 각각 받게 됩니다.

연구상은 김석규 동국대 교수, 신진연구자상은 신재은 중앙대 교수가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이 행사에서는 오경록 회장(경희대 교수)이 이임하고 14대 조규청 회장(한신대 교수)이 취임합니다.

1996년 창립된 올림픽성화회는 선수 출신 교수들이 엘리트 스포츠 발전을 위해 만든 학술 단체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2023년 안전경영 인증 체육시설 선정

국민체육진흥공단은 14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2023년 체육시설 안전경영 인증' 시설을 선정하고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체육시설 안전경영 인증제도는 체육시설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안전 관리가 우수한 체육시설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 2018년부터 추진돼 지난해까지 총 65개의 체육시설이 인증을 받았다.

올해는 총 41개 기관에서 50개의 체육시설이 지원해 서류심사, 컨설팅(시설별 3회), 현장 인증심사 및 최종 심의를 거쳐 15개 체육시설이 선정됐다.

수여식에서는 조현재 이사장이 참석해 온조대왕문화체육관(강동구도시관리공단), 과천시민회관(과천도시공사) 등 선정된 시설 관계자에게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하며 안전경영 인증 획득을 축하하고 더 안전한 시설로 거듭날 것을 당부했다.

조현재 이사장은 "최근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만큼 보다 많은 체육시설이 본 제도에 참여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모든 체육시설이 안전 관리 문화 확산에 동참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주간 스포츠 소식

대한체육회, 태릉스케이트장 대체 시설 부지 공모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460363&plink=ORI&cooper=NAVER

한 달 체육관 사용료가 만 원, 재미가 쏠쏠합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85936&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무자격 선거인 구성' 달성군체육회 임원들, 집행유예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215_0002560393&clD=10810&pID=10800

체육기자 선정 2023년 톱뉴스는 'LG트윈스 29년 만의 감격 우승'

<https://www.yna.co.kr/view/AKR20231217012800007?input=1195m>

체육진흥공단, 국민체력100 우수 체력인증센터 시상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31217010009845>

후배 직원 때린 광주 자치구 체육회 사무국장 입건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212_0002555001&clD=10809&pID=10800

체육·교육·복지공간 한자리에...포항 다원복합센터 착공

<https://www.yna.co.kr/view/AKR20231215091300053?input=1195m>

경상북도체육회, 2023 시군체육회 직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https://www.idaegu.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2740>

충주 서충주국민체육센터 준공...내년 1월 개관

<https://www.yna.co.kr/view/AKR20231218052400064?input=1195m>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